

#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이 보험료 많다

### 기본보험료는 10~15%가 사업비 · 추가납입시 2% 안팎 계약관리비만 가져가

#. 목돈마련을 위해 강씨와 직장선배 조씨는 매월 30만원씩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A보험회사의 B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강씨는 10만원은 기본보험료로 내고 20만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반면, 조씨는 30만원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했다. 10년 후 만기가 돼 보험금을 댔는데 강씨는 조씨보다 100만원 이상 더 많은 현금금을 받았다. 어떻게 된 것일까.

비밀은 추가 납입제도에 있다. 같은 돈을 내더라도 보험료를 추가납입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금을 더 더 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세 번째 금융꿀팁으로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23일 안내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더 내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가 납입을 했을 때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기본보험료의 경우 모집 수수료(설계사 수당)와 계약관리비, 위험보험료 등을 부과하기 때문에 통상 10~15%의 사업비가 부과되지만 추가납입은 2% 안팎의 계약관리비만 가져간다.

앞 사례와 동일하게 매월 30만원씩을 10년간 납입해도 강씨와 같이 기



**드론&예술 융합전** KT(회장 황창규)는 강훈식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과 문화예술을 융합한 드론&예술 융합전(DRONE & ART CONVERGENCE EXHIBITION)을 오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국회의원회관 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보험료로 10만원만 내고 20만원은 추가납입하면 10년 만기시 약 145만원을 더 지급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일부 보험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보험사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사망 등을 보장하는 위험보험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 통상 추가납입은 처음에 가입한 납입한도의 2배 이내에서 가능하다. /뉴스

##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 가시화”

### EU '검증되지 않은 정책' 우려감 커져 일본 '주가 하락, 엔화 상승' 역효과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지만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책 초기에 나타났던 통화 가치 하락과 대출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약화되는 가운데 가계의 소비 심리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3일 '한계 드러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통화 완화 경쟁 격화시킨다' 보고서를 통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기준금리 인하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다.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예치금 중 일부에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닌 일종의 보관료를 내기 때문에 자금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유럽은행은 2014년 6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 이후 자금이 풀리면서 유로화 약세가 이어졌다.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스웨덴과 덴마크도 수출경쟁력 유지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각각 2014년 7월과 9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재개했다. 스위스도 이에 동참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유럽의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효과는 1년 남짓 밖

에 지속되지 못했다.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통화정책을 펴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고,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졌다.

일본 역시 올해 1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확보와 주가 상승 유도가 목적이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발표 이후 2월12일까지 니케이 주가지수는 5.4%하락했고 엔화가치는 14.7% 급등했다.

8월18일까지도 주가는 3.3% 떨어졌고 엔화가치는 1.2% 상승했다.

엔화가 기대와 반대 흐름을 보이면서 일본의 7월 수출은 2014년 7월과 비교해 12% 줄었고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이르면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보다 강도 높은 통화완화 정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통화완화 다음 카드도 도입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향후 통화 정책 결정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추가 통화완화 정책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 7월 수입물량지수 전년동기비 4.9% 감소

“폭스바겐 국내 판매 중단 영향 커” 수출 물량 증가-금액 감소 현상 지속  
순상품교역조건지수 0.4% 상승 그쳐

우리나라 수입물량지수가 석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량지수는 117.93으로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했다. 수입금액지수 역시 93.7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3.1% 줄어 들었다.

수입물량지수는 지난 4월 -3.0%에서 5월 2.2%로 플러스 전환한 뒤 6월에도 2.3%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7월에는 석탄 및 석유제품의 상승에도 승용차를 중심으로 수출품 수

입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년동기

대비 4.9% 하락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수입이 줄어든 데다 전체 수입물량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승용차 수입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폭스바겐의 국내 판매 중단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승용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품 물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3.2%나 감소했다. 승용차 물량지수는 지난 3월 -8.0%의 감소세를 나타낸 이후 4월 11%, 5월 15%, 6월 28.4%로 줄곧 두자리 수 증가세를 보

여왔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물량지수는 139.61(2010=100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8% 상승했다.

다만 전년동기 대비 수출물량지수는 석달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수출물량지수는 지난 4월 3.3% 하락, 5월 화장품 및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5.9%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7월에는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등의 증가에도 승용차 및 일반기계 수출이 부진한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수출금액지수는 111.0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0% 줄어 수출물량 증가에도 수출금액은 감소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중국 등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제품단가 하락 등의 영향을 받

은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석탄 및 석유제품(12.7%), 화학제품(9.8%), 정밀기기(7.1%) 등이 증가해 물량지수가 늘어난 반면, 금액지수에서는 수출품(-13%), 섬유 및 가죽제품(-11.3%), 일반기계(-9.2%) 등의 하락폭이 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가격(-8.3%)보다 수입가격(-8.0%)이 더 크게 내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유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직접 최저 수준이었다.

2014년 9월(0.6%) 보다도 증가폭이 더 쪼그라들었다. 순상품교역지수는 수출상품 1단위 가격과 수입상품 1단위 가격간의 비율로,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낸다.

수출로 벌어들인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과 순상품교역지수가 모두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2% 상승한 139.74를 나타냈다. /뉴스

## 삼성전자, 올림픽 무선통신 마케팅 '성공'

### 갤럭시 스튜디오 '기어 VR 스테이션' 33만 명 이상 탑승

2016 리우 올림픽 무선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사인 삼성전자가 이번 올림픽에서 마케팅 캠페인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림픽 기간 중 올림픽 테마로 꾸며진 '갤럭시 스튜디오' 13곳을 운영했다.

브라질 전역에 위치한 갤럭시 스튜디오는 총 100만명 이상이 방문해 올림픽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 올림픽을 빛낸 여러 국가대표 선수들도 연이어 방문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스튜디오 내 '기어 VR 스테이션'은 33만 명 이상이 탑승해 4D 롤러코스터와 카약의 스릴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삼성전자가 2016년 리우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함께 출시한 'Rio 2016' 올림픽 공식 애플리케이션도 총 6백

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선수들과 팬들이 경기 일정과 결과 등 다양한 올림픽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 약 1만2500대의 '갤럭시 S7 엡지'를 올림픽 에디션과 무선 이어버드 '기어 아이폰X'를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선수촌 내 '갤럭시 스튜디오'에서는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했다. '#DoWhatYouCan't' 디지털 해시태그 캠페인에는 총 1억3000만명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사용자가 참여했고 약 16억5000만 명의 SNS 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이 노출됐다. /뉴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